마애 권예의 삶과 낙강정*

황 만 기**

1. 들어가는 말
2. 마애 권예의 삶
3. 낙강정의 건립과 이건 과정
  1) 낙강정의 건립
  2) 낙강정의 중건과 이건
4. 낙강정의 현판과 후대의 제영시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6세기 초반의 인물인 마애 권예의 삶과 그가 만년에 경영한 낙강정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권예는 조선선비들의 참화로 불리는 4대 사화의 하나인 기묘사화의 중심에 서서 공명정대한 신념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당시 춘추관기사관으로 있던 그는 기묘사화가 일어난 다음날인 1519년 11월 16일에 거사의 발생을 듣고서 25세의 혈기로 국왕 중종을 직접 대면하여 거사의 부당함을 직언하는 등 기묘사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의 과단성 있는 행동은 동방의 현인으로 추앙받는 퇴계 이

* 심사과정에서 본 논문에 대해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학술연구대우교수 / sino5360@hanmail.net

황에 의해 높이 평가받았다. 또 그가 장수지소로 경영한 낙강정 또한 퇴계가 이곳을 찾음으로 인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때 읊은 퇴계의 7언 절구 마지막 구의 '판서연(判書淵)' 세 글자로 인해 낙강정은 판서연으로 거듭 태어났다. 판서연으로 거듭난 낙강정은 이후 몇 차례의 중건과 이건 과정을 겪었으며, 2011년 경상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낙강정에는 현재 낙강정과 판서연 편액을 비롯한 중수기문, 제영시 등 모두 16점의 현판이 걸려 있다.

◈ 주제어 ——————————————————————————

마애(磨厓) 권예(權輗), 낙강정(洛江亭), 판서연(判書淵), 퇴계(退溪) 이황(李滉), 청성산(靑城山)

1. 들어가는 말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丹湖里)는 단지(丹池)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낙동강이 흘러 나가는 모양이 단지와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도 하고, 마을 주위의 흙빛이 붉고 못이 있어서 '단지'라 이름을 붙였다고도 한다. 1983년 풍산읍 단호리가 안동군 남후면에 편입되었고, 1995년 1월 1일 안동군과 안동시가 통합되면서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가 되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유서 깊은 두 정자가 위치해 있는데, 바로 낙암정(洛巖亭)과 낙강정(洛江亭)이다. 낙암정은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맞은 편 절벽 위에 위치해 있다. 도깨비 정자로 알려진 이 정자는 고려때 감사를 지낸 배환(裵桓)이 지은 정자이다. 이곳 낙암정 입구에서 서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단호샌드파크야영장 이정표가 보인다. 이곳에서 다시 우측방향으로 1킬로미터 정도 내려가다 보면 단호샌드파크야영장으로 들어가기 전 오른쪽에 새로 단장한 아름다운 정자가 시야에 들어온다. 이 정자가 바로 낙강정이다. 이 정자는 마애(磨厓) 권예(權輗, 1495~1549)가 중종, 인종, 명종 세 조정에서 벼슬하다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용퇴(勇退)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 1212~1300)이 무예를 익히면서 노닐던 곳에 만년의 장수지소(藏修之所)로 삼은 곳이다. 이곳은 2011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정자 앞도 새롭게 단정되어 접근이 매우 용이해졌다. 이곳에서 또 풍산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마애리가 나온다. 마애리는 이곳에 깎아지른 벼랑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망천(輞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권예가 이곳 일대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자호로 삼은 듯하다.

마애 권예는 조선선비들의 참화로 불리는 4대 사화의 하나인 기묘사화의 중심에 서서 공명정대한 신념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기묘사화는 조선초기부터 점화되었던 훈구파와 사림간의 대립에서 홍경주(洪景舟), 심정(沈貞) 등의 훈구파가 조광조, 안당 등의 사림들이 정국공신의 개정과 현량과(賢良科) 실시가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1] 그러나 이는

국왕 중종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중종이 훈구세력을 부추겨 사림들을 정치권력에게 몰아낸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또 역사학자들은 세종, 성종 때도 유지되었던 소격서를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이 혁파하려고 할 때 중종이 처음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조광조가 소격서를 유지한 것이 세종대왕의 유일한 오점이라는 한 것에 미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훈구세력을 등에 업고 조광조 일당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종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살펴보면, 중종이 당시 승지였던 윤자임도 모르게 이장곤・심정・성운 등에게 입궐 명령을 내렸고, 이들은 경복궁의 서문인 연추문(延秋門)을 통해 들어와 근정전・경연청 등을 장악하였다.[2] 이때 승지 윤자임이 경복궁에 잠입하게 된 연유를 묻자 이장곤은 중종이 표신(標信)으로 불렀기 때문에 왔다고 하였다. 이에 윤자임은 중종이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신하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직접 중종에게 확인하려 하자 승전색(承傳色) 신순강(辛順强)이 병조참지 성운에게 궐내로 들어가 중종의 전교를 듣고 수행하라고 하였다. 윤자임은 거사의 부당함을 따지면서 만류하였지만 소용없는 노릇이었다.[3] 이후 성운이 중종의 교지를 바탕으로 왕명에 의거하여 승정원에 숙직하던 승지 윤자임과 공서린, 주서 안정, 한림 이구 및 홍문관에 직숙하던 응교 기준, 부수찬 심달원 등을 모두 옥에 가두었고, 또 의금부에 명하여 우참찬 이자・형조판서 김정・대사헌 조광조・부제학 김구・대사성 김식・도승지 유인숙・좌부승지 박세희・우부승지 홍언필・동부승지 박훈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4]

---

1) 정두희, 「기묘사화와 조광조」, 『역사학보』 제146집, 역사학회, 1995, 109쪽 참조.

2) 『中宗實錄』 卷37, 中宗 14년 11월 15일 조 "延秋門已洞開, 而門卒整儀而立. 趨入勤政殿望見, 則靑衣軍卒, 左右擁立殿陛下. 自任等排突而入, 直就經筵廳, 閤門內外皆張燈, 其坐於閤門外者, 兵曹判書李長坤、中樞府事金詮、戶曹判書高荊山、花川君 沈貞、兵曹參知成雲也."

3) 앞의 글 같은 곳, "自任大唱曰: '公輩何以至此?' 長坤等曰: '自大內標信召之, 故來耳.' 卽請承傳色, 欲入啓, 則承傳色辛順强, 卽出召成雲曰: '以爾爲承旨, 卽可入聽傳敎也.' 自任叫曰: '是何事也?' 成雲卽起將入, 自任呼雲曰: '雖爲承旨, 豈可無史官入對?' 使注書安珽止雲, 珽曰: '雖有急, 史官則不可不與.' 遂攬雲帶欲共入, 雲擊珽臂, 趨入內, 守門五六人推珽而出."

이것이 1519년 11월 15일 밤에 있었던 기묘사화의 발생 과정이다. 당시 춘추관기사관으로 있던 마애(磨厓) 권예(權輗, 1495~1549)는 그 다음날에서야 사건을 전해 듣고서 중종에게 직접 대면하여 거사의 부당함을 직언하는 등 기묘사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였다.[5] 이처럼 기묘사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또 조종의 폐해와 잘못에 대해서 거침없는 어조로 강론한 그였지만, 그의 사초(史草)에 대한 연구가 두 편 있을 뿐[6]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권예의 삶을 기묘사화와 연관지어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아울러 그가 만년에 장수지소로 삼은 안동의 낙강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마애 권예의 삶

마애의 행적은 『조선왕조실록』, 『기묘명현록』, 『영남인물고』, 『영가지(永嘉志)』, 『금계지(金溪志)』 등에 소개되어 있으며, 두암(斗庵) 김약련(金若鍊, 1730~1802)의 신도비명(神道碑銘)과 운산(雲山) 이휘재(李彙載, 1795~1875)의 행장(行狀)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권예는 태사(太師) 권행(權幸)의 21세손으로 자(字)가 경신(景信), 자호(自號)가 마애이다. 조부는 오위군사용(五衛軍司勇)을 지냈으며 안동우향계[7]에 참여한 권자겸(權自

4) 앞의 글 같은 곳, "則承政院直宿承旨尹自任・孔瑞麟、注書安珽、翰林李構及弘文館直宿應敎奇遵、副修撰沈達源也. 自任等皆就獄. 又命禁府, 拿囚右參贊李耔、刑曹判書金淨、大司憲趙光祖、副提學金絿、大司成金湜、都承旨柳仁淑、左副承旨朴世熹、右副承旨洪彦弼、同副承旨朴薰."

5)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뒷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6) 정구복, 「中宗朝 磨厓 權輗의 史草」, 『季刊書誌學報』 8, 한국서지학회, 1992 ; 김경수, 「中宗朝 權輗의 史草에 對한 硏究」, 『고문서연구』 9권, 한국고문서학회, 1996.

7) 우향계에 참여한 사람은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이증(李增), 사용(司勇) 권자겸(權自謙), 현감 배효건(裵孝騫), 부사(副使) 남경신(南敬身), 사용(司勇) 노맹신(盧孟信), 통찬(通贊) 배효눌(裵孝訥), 사정(司正) 남치공(南致恭), 사용(司勇) 권곤(權琨), 진사 남치정(南致晶), 부사(副使) 남경인(南敬仁), 충찬위(忠贊衛) 배주(裵裯), 훈도(訓

謙)이고, 아버지는 귀래정(歸來亭) 주인인 낙포(洛圃) 이굉(李浤, 1440~1516)과 함께 안동(安東) 향중(鄕中)의 장석(丈席)이었던 권철경(權哲經, ?~1524)이며, 어머니는 창원황씨[8]로, 황윤경(黃允卿)의 따님이다. 그는 1495년(연산군 1)에 영주시 순흥면 병산리(甁山里) 외가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창원황씨의 태몽에 어린아이가 두 발로 산을 옮기는 꿈을 꾸어 어릴 때의 자(字)를 '예산(曳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총민하고 재주가 많았으며 22세에 사마 양시에 입격하였고, 같은 해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얼마 뒤에 사국(史局)으로 천거되어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충암(冲庵) 김정(金淨) 등과 함께 강연(講筵)에 들었을 때 조광조가 조정의 군현들을 징치하려고 하자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이 이를 꺼려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에서 변고를 일으켰다. 당시 춘추관기사관으로 있던 권예는 변고의 부당함을 국왕 중종에게 다음과 같이 직언하였다.

> 처음 모의한 사람을 알고 싶으나 누구인지 모르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필부가 일을 처리함에 광명정대(光明正大)하지 않을 수 없거늘,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이는 안위와 존망에 관계된 일이니, 만약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 대신들이 마땅히 도당에 모여 환한 대낮에 해야 합니다. 밤에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신무문(神武門)도 거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이 그날 밤에 춘추관에 숙직하다가 이를 보고 처음에는 무슨 큰일이기에 이다지 비밀스럽게 하는지 의심하여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무리 큰일이더라도 궁문(宮門)은 주서(注書)로 하여금 열도록 해야 합니다.[9]

권예는 신무문에서의 거사가 올바르지 못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묵인한

導) 배정(裵禎), 별시위(別侍衛) 권숙형(權叔衡)이다.

8) 창원황씨 : ?~1538. 80세 가까운 수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9) 『中宗實錄』 중종 14년 11월 17일 정미 4번째 기사, "欲識始謀之人, 而不知其某也, 不勝悶鬱. 匹夫處事, 不光明正大, 猶不可也, 況人君乎? 此安危存亡之所係也. 若行如此之事, 則大臣當會于都堂, 白日中爲之可也. 夜則不合, 而神武亦非學事之地也. 臣於其夜, 直宿春秋館見之, 初疑有何大事, 而秘密至此乎? 驚懼莫知所爲. 雖甚大事, 宮門當使注書開之也."

중종의 공명하고 정대하지 못한 처사를 강건한 어조로 설파하고 있다. 또한 궁궐문을 함부로 연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하였다. 이에 중종은 다음과 같이 변명하기에 이른다.

> 그때 승정원서 열쇠를 받아 궁문을 열도록 하였으나, 아랫사람이 알리지 않았거나 승지가 없었던 모양이다. 대저 기밀(機密)한 일이란 한결같지 않아서 정대(正大)히 처리해야 할 경우도 있고 비밀리에 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10)

중종은 궁문을 열도록 한 일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신무문의 일은 비밀리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므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종의 변명에 권예는 또 다시 직언하였다.

> 반정 때의 일도 광명정대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 일은 바를지라도 그 방법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이 번번이 이러합니다. 묘당에 앉아 대의를 들어서 그 죄를 분명히 바루면 그 사람들이 어찌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그르치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에는 어찌 간사가 있었겠습니까?11)

이렇듯 기묘사화의 거사를 두고 25세의 청년 권예는 국왕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비록 그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으나 국왕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다. 그는 또 사헌부장령으로 있으면서 우의정 이항(李沆)을 논죄하고 멀리 유배 보낼 것을 청하였으며, 대사간으로 있을 때에는 대사헌 김근사(金謹思)와 함께 심정(沈貞)의 간

10) 같은 글, “其時使受鑰匙於政院而開之也. 必下人不告, 或承旨不在也. 大抵機事不一, 有正大之事, 有秘之事, 不可一概言之也.”

11) 같은 글, “聞‘反正時之事, 亦不明正’ 云. 其事雖正, 而其施爲則不正也. 我朝之事, 每如此也. 坐朝堂, 擧大義, 明正其罪, 則其人豈不服哉? 其人雖誤國事, 其心則豈有邪哉?”

사하고 사특한 죄를 물어 엄하게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 심정이 간사하고 음독(陰毒)하며 권세를 독단하며 교만하고 방자한 것은 주상께서도 환히 아시므로 마땅히 중벌을 내려야 하거늘 관작(官爵)만을 삭탈하시니, 대간과 시종이 서로 글을 올려 아뢰고 여러 날 동안 복합(伏閤)합니다. 전하께서는 늘 대신이라 핑계하여 이렇게까지 망설이시니, 신들은 아마도 전하께서 평소에 심정의 간사한 술수에 속아서 간사한 행동을 알아보는 총명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그러한 듯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천하가 공동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임금도 굽힐 수 없는데, 더구나 제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게는 절로 그 율문이 있으니, 전하께서 형세에 따라 법을 써서 형벌을 잘못 썼다는 비판을 받으시려 하십니까?
>
> 만약 심정의 죄가 단지 한 집이나 한 몸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납하셔도 되고 매우 어렵게 여기셔도 되지만, 그의 간사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고 크게 존망(存亡)에 관계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묵묵히 도운 데에 힘입어 오늘날에 일찍 드러난 것은 종사(宗社)의 행복입니다. 조정의 공론은 시종과 대간에게 달려 있는데, 전하께서는 구차히 권간(權奸)을 용서하여 결단하지 않은 채 공론을 물리치시니, 국가와 종사에 어떠하겠습니까? 율문을 상고하여 쾌히 결단하소서.[12]

이외에도 중국으로 사신을 갈 때 귀중품을 비밀리에 함부로 사오는 폐단을 논계하였고, 군현의 관기들을 멋대로 쓰는 폐단을 엄격히 배척하였으며, 어전에서 중국 사신들을 접대할 때 기녀들이 곁에서 모시는 일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맡은 바의 직책을 원만하게 수행하며 활발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 나갔다. 이후 그는 홍문관 대제학, 병조참판, 사헌부대사헌, 경상도관찰

12) 『中宗實錄』 중종 25년 11월 27일 계축 1번째기사, "沈貞奸邪陰毒, 擅權驕恣, 上所洞照, 當用重律, 而只削官爵. 臺諫侍從, 交章陳列, 伏閤累日, 殿下每諉以大臣, 而留難至此. 臣等恐殿下, 平日見欺於貞之奸術, 而燭邪之明, 或有所未至而然也. 法者, 天下共公之器, 人主亦不得撓屈. 況大臣專擅者, 自有其律, 殿下豈可低昻, 以取失刑之譏乎? 若貞之罪, 只在一家一身, 則雖殿下優容, 可也, 重難, 亦可也, 奸狀已露, 大關存亡. 賴天默佑, 早發於今日, 宗社之幸也. 朝廷公論, 在侍從臺諫, 殿下苟容權奸, 姑息不斷, 以拒公論, 其於國家宗社何? 伏願按律快斷."

사, 사간원대사간, 의정부우참찬, 이조판서, 호조판서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특히 경상도관찰사에 제수되어서는 백성들을 구휼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에 정열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행보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나이 43세 때인 1537년에 심언광(沈彦光)과 함께 추향(趨向)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이 되기도 하였고,[13] 또 이듬해인 1538년에는 이른바 정유삼흉(丁酉三凶), 즉 김안로·허항·채무택을 관계에 진출시키는데 간여하였다는 이유로 심언경 등과 함께 파직되기도 하였다.[14]

마애는 그해 5월에 어머니 창원황씨가 죽어 상을 치르기 위해 안동으로 낙향하였다. 이후 죽을 때까지 10여년을 고향 안동에서 관료가 아닌 은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15] 마애가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동갑계의 일원인 잠암(潛庵) 김의정(金義貞, 1495~1547)이 친구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음과 같은 만시를 지었다.

靑年兩鳳大占祥	젊은 시절에는 두 봉황이 크게 길하리라는 점쳤고
晩歲三牲極寵光	만년에는 지극한 은총으로 삼생의 봉양 하였네
享世永膺龜鶴算	누린 연세는 길이 거북과 학의 나이에 응하였고

13) 『中宗實錄』 중종 32년 12월 8일(계축) 3번째 기사, "臺諫啓曰: '右參贊沈彦光、戶曹判書權輗, 趨向不正, 所失甚大, 請竝勿敍顯列.' …中略… 傳曰: '沈彦光、權輗, 大臣也, 臺諫論啓, 亦豈偶然乎? 今遞本職可也.'" 앞의 정구복의 논문 33쪽 참조.

14) 『中宗實錄』 중종 33년 2월 20일 갑자 2번째 기사, "領議政尹殷輔、左議政洪彦弼、右議政金克成、左贊成蘇世讓、右參贊成世昌啓曰: '沈彦光、沈彦慶、權輗, 當初有物論. 然臣等意以爲, 雖在朝廷, 似爲無妨, 而自上亦以鎭靜爲敎, 故只遞顯職, 而不更論啓矣. 但去奸旣久, 則似可鎭靜, 而物情久而愈激. 使公論鬱抑, 至爲未便, 故敢啓. 沈彦光則罷職收告身, 沈彦慶、權輗, 則只罷何如?'" ; 『중종실록』 중종 33년 2월 20일 갑자 2번째 기사, "傳曰: '今聞沈彦光、沈彦慶、權輗之事, 則三凶成勢, 實由於此三人. 若是則豈可在朝乎? 依大臣所啓, 罷職可也.'"

15) 『명종실록』에는 그에 대한 졸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명종 4년 4월 12일 신해 2번째기사, "前吏曹判書權輗卒. 【爲人資質聰敏, 但無學力, 不愼所向, 趨附金安老, 廢居安東十餘年, 不治家産, 茅齋蕭條. 未嘗與往來使臣相接, 足迹亦未嘗一至官府.】"

生兒爭賀廟堂良　아들을 낳으니 조정의 인재라고 다투어 축하하였네
皐風撓樹思枝靜　皐魚는 바람이 나무를 흔드니 가지가 고요하기를 바랐고
莊夢迷春趁蝶忙　莊周는 꿈에서 봄날 나비를 쫓느라 바빴다오
單閼昔叨參贊契　묘년생으로 외람되이 동갑계에 참여했는지라
淚題哀輓不成章　눈물로 만사를 쓰려니 문장을 이루지 못하겠네[16]

모부인 창원황씨에 대한 만시이지만, 창원황씨가 장수를 누렸다는 것 이외에는 마애의 효행을 칭송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잠암 김의정은 마애보다 2년 먼저 세상을 등졌다. 둘 사이의 관계로 보아 잠암의 만시를 마애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헌이 남아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7구의 단알(單閼)은 고갑자 묘(卯)에 해당된다. 마애와 잠암은 모두 을묘생(1495년)으로, 당시 동갑 계모임을 하였음이 이 만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고향으로 낙향한 마애는 이후 10여년 동안 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에 낙강정을 건립하는가 하면 풍산읍 막곡리 청성산 성산사에서 은거적 삶을 영위하다가 1549년 불귀의 객이 되고 만다. 퇴계는 애통한 마음을 담아 만시 한 수를 바친다.

歎息新摧鶴駕峯　막 무너진 학가산을 탄식하노니
堂堂大廈棟曾隆　당당한 대궐에서 일찍이 우뚝한 동량이었네
千燒至寶難鎔化　천 번 달군 진귀한 보배는 녹이기 어렵고
百鍊精剛未挫鋒　백 번 정련한 굳센 철은 꺾이지 않았다네
羅雀門登三歲後　쓸쓸한 집을 삼년 뒤에 찾았고
綿雞奠闕九原中　황천길에 제수조차 바치지 못하였네
惟將萬斛羊曇淚　오직 양담의 만 섬 눈물을 가지고
灑向靑楓苦竹叢　푸른 단풍 참대 숲을 향해 뿌리네

이 만시는 『퇴계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충재(冲齋) 권벌(權橃, 1478~1548)의 종손(從孫)인 옥봉(玉峯) 권위(權暐, 1552~1630)가 가장(家藏)하던

16) 金義貞, 『潛庵逸稿』 卷3, 「權景信(輗)母氏挽」.

것으로, 원제목은 「퇴계선생만권판서예(退溪先生輓權判書輗)」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애는 기묘사화의 격랑 속에서도 초지일관 무편무당(無偏無黨)한 강직한 신념으로 공명정대한 입장을 취하였다. 퇴계는 마애의 이런 지조와 절개를 수 천 번 제련하여 쉽게 녹지 않은 보배와 수백 번 단련한 정밀한 쇠에 비유하여 칭송하고 있다. 3년 전에 강정을 찾은 퇴계는 3년 뒤인 오늘은 쓸쓸한 주검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이에 퇴계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양담(羊曇)[17]이 스승 사안의 죽음에 많은 눈물을 흘린 것에 비유하여 전하고 있다.

마애의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불당곡 조부 권자겸의 무덤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

부인은 남양홍씨와 청주한씨 두 분인데, 청주한씨 소생으론 딸 하나만 있었고 청주한씨에게선 자식이 없었으며, 다만 측실 소생으로 아들 근석(根碩)이 있을 뿐이어서 종형(從兄) 주(輳)의 아들인 안세(安世)를 후사로 삼았다.

마애 사후 그의 후손들이 퇴계에게 명문(銘文)을 청하였으나 퇴계는 사양을 하게 된다. 퇴계는 1552년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 1507~1581)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문을 사양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이때 마침 권공 계조(權公繼祖), 박군 중보(朴君重甫), 권공 경신(權公景信)의 집안 자제들과 인근의 사족 몇몇 집안에서 명문(銘文)을 부탁하였으나, 황(滉)은 모두 이미 간절한 말로 사양하여 짓는 것을 모두 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다행히 면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서로 의심하고 서로 서운한 말을 더하니 황(滉)은 바야흐로 무척 두려워하고 또 스스로 평소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여 일없이 곤란을 당하게 된 것을 슬퍼하였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다시 여러 곳에서 문장이나 글씨를 부탁하였으나 병이 심할 뿐만 아니라 전에

17) 양담은 진(晉) 나라 사람으로, 사안(謝安)이 그를 애지중지하였는데, 사안이 죽자 양담이 그를 사모하여 평소 기거하던 서주(西州)의 길은 경유하지도 않다가, 어느 날 만취하여 무의식중에 노래를 부르면서 서주 성문에 이르자 "살아서는 으리으리한 집에 살더니 죽어서는 산언덕에 묻혔구나.[生存華屋處 零落歸山丘]"라는 조자건(曹子建)의 시를 읊고 통곡하며 떠났다 한다. 『晉書 卷79 謝安傳』

사양하였던 것을 뒤에 허락하기 어려워 또한 모두 간절히 사양하여 면하였습니다.[18]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퇴계는 권찬(權纘, ?~1560)과 박승임(朴承任, 1517~1586), 그리고 마애의 명문을 비롯한 일체의 글 청탁을 사절하였다. 퇴계에게 거절을 당한 마애의 후손들은 서운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퇴계는 속앓이를 꽤나 심하게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는 평생 41편의 명문과 7편의 행장을 저술하였으나, 신도비명은 단 한건도 짓지 않았다. 마애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퇴계에게 거절을 당한 후손들은 달리 방도가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250여년이 지난 뒤에 마애의 7대손인 학림 권방의 청에 의하여 두암(斗庵) 김약련(金若鍊, 1730~1802)이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짓게 된다. 전체적인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대동소이하므로 마지막 명(銘) 부분만 소개하기로 한다.

上洛之水 判書之淵　상락대 아래의 물을, 판서연이라 이름 붙인
退翁之詩 判書之賢　퇴계의 시로 인하여, 판서의 어짊 알려졌네
事與水白 名與詩傳　사적은 물과 함께 희고, 명성은 시와 함께 전해지네
彼峯者鶴 其高如天　저 우뚝한 학가산은, 하늘처럼 높이 솟아 있네
金精何埋 寶彩依然　정련된 황금이 어찌 매몰 되겠는가?의연히 보배로운 빛을 띠게 되리
我思在昔 水北山前　내 예전 일을 생각하노니, 강물 북쪽과 건지산 앞에
亭餘古址 草沒寒阡　정자의 옛 터 남아 있고, 풀 우거진 찬 무덤 있으니
後人無斁 先師所虔　후인들이 싫어하지 않음은, 선사의 공경 때문이라네[19]

18) 李滉, 『退溪集』 卷9, 「答宋台叟書」, "於時適有以銘文見囑, 如權公 繼祖、朴君 重甫、權公 景信家子弟及鄕近士族數家, 滉旣皆哀懇苦辭, 一切解免. 雖幸得免, 而多以相疑相憾之言見加, 滉方深恐懼, 又自悼素不能取信於人, 以至無事而自困也. 來京師, 復有數處, 或以文或以書來囑, 非徒病甚, 尤以前辭後許爲難, 亦皆懇免."
19) 金若鍊, 『斗庵集』 卷9, 「資憲大夫吏曹判書權公神道碑銘 幷序」.

퇴계가 마애의 강정 시에서 판서연이라 명명하고 용퇴한 현인이라 존경했기 때문에 마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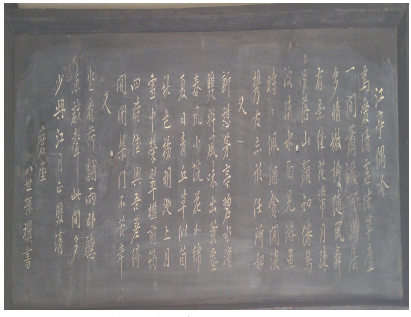
3. 낙강정의 건립과 이건과정

1) 낙강정의 건립

낙강정은 1541년에 마애 권예가 상락공 김방경이 무예를 익히던 상락대 남쪽 구석진 곳에 세운 정자이다. 이곳은 안동부 건지산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낭떠러지 아래에는 황지에서 샘솟은 낙동강물이 봉화, 예안, 안동을 거쳐 장구히 흐르고 있어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명승지이다.[20] 이 정자가 위치한 곳은 여느 일반적인 정자처럼 배산임수의 자연적 환경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 마애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산수풍경을 배경으로 유유자적하며 당시의 감회를 시로 승화하였다. 그의 강정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爲愛淸虛結草廬	청허함을 좋아하여 초려를 지었더니
一間瀟灑可幽居	소쇄한 한 칸 집이 은거할 만하구나
多情嫩柳隨風舞	정 많은 어린 버들 바람 따라 춤추고
有意佳花帶月疏	뜻 있는 예쁜 꽃은 달빛 띠고 성그네
日落山顔知倦鳥	해지는 산에는 지친 새가 깃들겠고
波淸水面見遊魚	맑은 수면에는 노는 물고기 보이네
時時佩酒貪閒淡	이따금 술가지고 한담함을 탐하려고
携友忘形任所如	절친한 벗과 함께 가는 대로 맡기네[21]

20) 金坵, 『龜窩集』 卷8, 「判書淵記」, "洛江出黃池, 西南流三數百里, 至府之搴芝山絶壁下, 匯而爲淵. 越江而鳳停鶴駕諸山, 南走數三十里, 與搴芝山相對爲襟抱, 眞江山勝處也. 高麗上洛金公某, 就淵之上絶壁間隙地, 築臺而遊焉, 卽所謂上洛臺者是也. 國朝磨厓權公, 以吏曹判書退朝, 構亭于臺之南奧處, 爲終老計." 여기에서 말하는 건지산은 예안에 있는 산이 아니고 남후면 단호리에 있는 산을 말한다.


마애가 읊은 강정 시

마애는 맑고 허령한 단호 일대에 깨끗하고 산뜻한 한 칸의 초옥을 지어 놓고 은거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바람결에 날리는 버들이 정겹고, 예쁜 꽃들은 달빛을 받아 아름답기 그지없다. 저녁이 되면 새들이 제각각 잠잘 곳을 찾아 깃들고, 정자 앞 강물에 노니는 물고기들은 한가롭기만 하다. 이곳에는 버들·꽃·새·물고기 등 자연친화적 요소가 가득할 뿐, 훈구와 사림이 시비를 논하는 정쟁의 소리 따윈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절친한 친구와 함께 술병을 들고 발길 닿는 대로 상춘을 즐기고 있다. 두 번째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新憩茅亭碧水濱	푸른 물가 새로 지은 정자에서 쉬니
雙眸風味出囂塵	두 눈동자 속세를 벗어난 풍미로세
春風小院花如錦	봄날의 작은 정원엔 비단 같은 꽃 피었고
夏日靑邱草似茵	여름날 푸른 언덕엔 깔개 같은 풀 돋았네
秋色揚明池上月	연못 위의 달은 가을에 더 없이 밝고
雪中榮翠檻前筠	난간 앞의 대는 눈 속에 더욱 푸르네
四時佳興吾差得	사계절 흥취를 내 조금이라도 얻었으니
閒閉柴門不苦辛	사립문 닫고 지내는 것도 괴롭지가 않네[22]

마애는 속세를 벗어난 물가에 새로이 정자를 짓고 사계절의 흥취를 만끽하고 있다. 봄에는 정원에 핀 꽃을 보고, 여름에는 푸른 언덕의 풀을 보며, 가을에는 연못 위의 밝은 달을 구경하고, 겨울에는 눈 속에도 푸름을 간직한 대나무를 감상하고 있다. 비록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계절의 멋스러움이 함께 하고 있기에 더 이상 외롭지가 않다.

21) 權輗, 『磨厓先生實紀』 卷1, 「江亭偶吟」 3수 중 첫 번째 시.
22) 「江亭偶吟」 두 번째 시.

坐看荷飜雨　앉아서 비에 뒤집히는 연잎을 보고
臥聽魚戲聲　누워서 노니는 물고기 소리를 듣네
此間多少興　이곳에도 많은 흥취 남아 있으니
江月正雙淸　강과 달이 정히 맑고 맑구나[23]

성산사 옛터를 알려주는 3층석탑

연, 물고기, 강, 달은 자연친화적 매개체이다. 이들 매개체들은 속세의 어지럽고 시끄럽고 떠들썩한 이미지와는 상반된 시어들이다. 강정에서의 흥취를 즐기고 있는 마애의 모습에서 공명정대(公明正大)나 시비곡직(是非曲直)의 단어보다는 천석고황(泉石膏肓)과 연하고질(煙霞痼疾)이 더 적합하게 느껴진다. 벼슬에서 물러난 마애는 이곳뿐만 아니라 청성산 성산사(城山寺)에 우거하며 은거지향적 삶을 추구하였다. 성산사는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청성산에 있었던 오래된 사찰로 성산사(星山寺), 백운암(白雲庵) 등으로도 불려졌으며, 지금은 3층석탑만이 옛 자취를 말해주고 있다.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은 마애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는데, 이때 친구를 보러 이곳을 찾았다.

一宿城山寺　성산사에서 하룻밤 묵으며
恭同太乙仙　삼가 태을 신선과 함께 했네
絳河流咫尺　강물은 지척에서 흐르고
塵界隔三千　속세는 삼천리나 떨어져 있네

23) 「江亭偶吟」 세 번째 시.

霞醴月中酌　달빛 맞으며 자하주를 마시고
玉簫天外傳　하늘 밖 옥퉁소 소리 전해지네
敲棊仍半日　온종일 바둑 두며 보내다가
應有爛柯旋　도끼자루 썩고서야 돌아가네[24]

이 시는 동갑내기 신재 주세붕이 마애에게 준 유일한 것이다. 마애는 이곳 성산사를 심신을 도야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적합한 장소로 선정하여 이곳에서 꽤 많은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선경이나 다름없는 성산사를 찾은 신재는 친구 마애와 동숙하며 서로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신재의 시에 마애는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邂逅良宵話　해후하여 밤새도록 담소를 나누니
淸遊擬謫仙　이적선의 맑은 유람인 듯하네
浮生俱半百　부질없는 삶은 둘 다 쉰이 되었고
古寺已過千　오랜 절은 이미 천년이나 되었네
玉笛三更暮　피리 소리 삼경 되어 멀어지나
黃絹四海傳　좋은 시구[25]는 사해에 전해지리라
終朝留客雨　머물던 길손은 아침 내내 비가 와서
欲去更周旋　가려고 하다가 다시 머뭇거리네[26]

마애는 청성산 성산사(城山寺)에서 절친 신재를 만나 밤새도록 담소 나누는 일을 당나라 이백(李白)이 49세 때 자극궁(紫極宮)을 노닌 것에 견주고

24) 周世鵬,『武陵雜稿』卷4,「敬呈權景信相公]」.
25) 원문의 황견(黃絹)은 좋은 시구나 글귀를 뜻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위(魏) 나라 무제(武帝)가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비석(碑石) 뒷면에 '황견유부 외손제구(黃絹幼婦外孫齏臼)'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때 무제와 함께 가던 양수(楊修)가 이 글을 풀이하기를 "황견(黃絹)은 색사(色絲)니 합치면 절(絶)자가 되고, 유부(幼婦)는 소녀(少女)이니 합치면 묘(妙)자가 되고, 외손(外孫)은 딸의 아들로서 곧 여자(女子)이니 합치면 호(好) 자가 되고, 제구(齏臼)는 매운 양념을 찧는 절구이니 수신(受辛)의 뜻이라 합치면 사(辭) 자가 되며, 모두 합치면 절묘호사(絶妙好辭)로서 절묘한 좋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하였다.
26) 權輗,『磨厓先生實紀』卷1,「星山會 次周愼齋世鵬韻]」.

있다. 바로 이어지는 구에서 두 사람의 나이가 쉰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나이는 이보다 한 살 적은 49세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1543년의 작품인 것이다. 4구의 고사(古寺)는 위에서 언급한 성산사를 말한다. 문봉 정유일·백담 구봉령·송암 권호문, 특히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양문(梁文) 등도 이곳에 와서 시를 짓기도 하였다. 6구의 황견(黃絹)은 좋은 시구를 뜻한다. 마애는 신재의 시구가 세상에 영원히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으나, 마애의 예언대로 신재의 시는 실재로 후학들에 의해 송독되고 차운되기에 이른다. 송암 권호문이 차운한 3수 중 두 번째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晩作靑城隱　늘그막에 청성산의 은자 되어
飄然海島仙　표연히 해도의 신선이 되었다네
水橫羅帶一　물에는 한 폭의 비단 띠가 펼쳐 있고
山揷玉簪千　산에는 천 개의 옥비녀가 꽂혀 있네
花雨三春過　꽃비가 늦봄에 지나가니
煙波萬古傳　희뿌연 물결은 만고에 전해지리
不知壺外世　모르겠네, 호리병 밖 세상도
磨蟻日相旋　맷돌 도는 개미처럼 일월이 운행하는지[27]

송암은 스스로를 청성산의 은자라고 칭하고 있다. 송암은 그의 나이 30세인 1561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33세 되던 해에 어머니상을 당한 이후로 과거를 포기하고 청성산에 은거하면서 이 산의 주인이 된다. 그는 이곳에서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가 벼슬을 주어 조정에 출사할 것을 권유하자 부춘산(富春山)으로 숨어버린 엄광(嚴光)에 자신을 비유하여 강호고사의 삶을 영위하였다. 1585년에는 청성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그 윗부분을 학봉 김성일에게 흔쾌히 나누어 주고는 유년시절부터 이어온 돈독한 우정을 표시하였다. 지금도 청성산 아래쪽에 위치한 송암의 별서 연어헌과 청성산 위쪽에 위

27) 權好文,『松巖集 續集』卷1,「次周愼齋板上韻」.

치한 학봉의 별서 석문정사가 이들의 지난날 자취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청성산의 주인이 된 송암은 이곳을 도학과 수양으로 공간으로 설정하여 학문을 닦고 내면세계를 정화해 나갔다. 그리고는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날 백담 구봉령에 이곳에 들르게 되었는데 송암은 시 한 수를 청하게 된다.

玲瓏巖壑勝　바위 골짝에 아름다운 승경이 있어
攀躡似登仙　더위잡고 오르니 신선이 된 듯하네
霞鶩長天一　노을과 따오기는 긴 하늘에 한색이고
暉陰秀氣千　빛과 그늘은 빼어난 기운 천 가닥이네
廬山分正色　여산에는 바른 빛깔 분명하고
洛水有眞傳　낙수에는 참된 전함이 있네
倘掃妖魑盡　혹여 요괴 다 쓸어버리고 나면
先賢迹可旋　선현의 자취 되돌릴 수 있으리라[28]

인용 시는 하나의 산수시이다. 백담은 전반부에서 청성산의 경치를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후반에서는 도학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산(廬山)은 1573년 안동유림들이 퇴계 이황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여강서원을 말한다. 낙수(洛水)는 낙동강을 말한다. 백담은 퇴계의 학문적 한 분야가 낙동강을 통해 송암에게로 전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한시 분야에 있어서는 송암이 퇴계의 의발을 전수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시 뿐만 아니라 국문시가 분야에 있어서도 퇴계의 「도산십이곡」을 송암이 「독락팔곡」과 「한거십팔곡」으로 환치하여 창작한 것을 보더라도 백담의 이런 인식은 일정부분 신뢰성이 느껴진다.[29]

위에서 살펴보듯이 마애와 신재가 함께 달콤한 꿈을 꾼 청성산은 송암 권호문이 이곳에서 은거하며 독서를 통해 내면을 수양하기도 하였으며 강학을 통해 후학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우생들과 함께 청성산 대학봉(對鶴峯)[30]

28) 具鳳齡,『栢潭集 續集』권1,「次星山寺周武陵韻」.
29)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른 지면을 통해 조망하고자 한다.

에서 노닐던 송암은 마애가 직접 심은 나무를 보고 경모의 감정이 북받친다.

幾度雲棲鶴夢回	학이 돌아와 깃들기를 몇 번이나 꿈꿨던가
一尋詩興浩難裁	한 번 찾으니 시흥이 도도하여 억제하기 어렵네
江濱雲霧舒還捲	강가의 안개가 끼었다가 다시 걷히고
眼底乾坤闔復開	눈 아래 세상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네
散客風懷閑有味	나그네의 회포는 한가로운 흥이 있고
前賢苔跡苦生哀	옛 현인의 자취에 괴로운 슬픔 이네
危臺徙倚千尋上	천 길 높은 우뚝한 누대에서 서성이다
邀醉羣眞閬苑來	낭원을 찾아온 신선 맞아 취하노라[31]

앞의 마애에게 준 신재 주세붕의 시와 송암의 이 시를 통해 마애가 청성산에 머물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림 권방도 「낙강정중건상량문」에서 신재와의 친밀한 관계를 재 입증해주고 있다.[32]

마애는 성산사에 유람하기 2년 전인 1541년에 상락공 김방경이 노닐던 곳인 공수포 가에 강정(江亭)을 짓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게 된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546년 3월 16일에 퇴계가 이곳을 방문한다. 퇴계는 마애선생을 존모하는 마음을 담아 7언절구 한 수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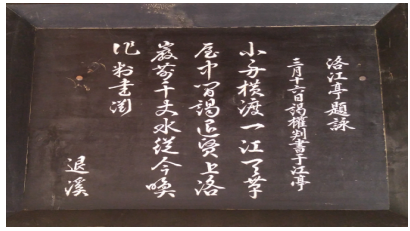
小舟橫渡一江天	작은 배로 낙동강을 가로질러 건너
草屋中間謁退賢	띠 집 속의 퇴휴한 현인을 배알하네
上洛巖前千丈水	상락암 앞의 천 길 강물을
從今喚作判書淵	이제부터 판서연이라 부르리라[33]

30) 對鶴峯 : 청성산에 있는 봉우리 이름이다. 『송암집 속집』 권6의 〈성산기(城山記)〉에 "적송봉(赤松峯), 대학봉(對鶴峯), 상진암(上眞巖), 적홍암(赤虹巖), 목단암(牧丹巖), 계수대(桂樹臺), 취소대(吹簫臺), 구하대(鷗下臺), 세이천(洗耳泉), 한송단(寒松壇)이 있다."라고 하였다.

31) 權好文, 『松巖集 續集』 卷2 「遊城山對鶴岑 與兩三友生醉吟 次東坡回字」

32) 權訪, 『鶴林集』 卷10, 「洛江亭重建上樑文」, "靑城山白雲寺 攜愼齋而盤旋"

33) 李滉, 『退溪集 續集』 卷1, 「三月十六日 謁權判書江亭」.



퇴계의 낙강정 제영시

퇴계는 상락대 건너편 낙동강가에 도착한 후 작은 배를 이용하여 강 건너 강정을 찾게 된다. 지금 흐르는 강물만을 보면 강폭이 그다지 넓지 않고 수심도 별로 깊지 않다. 그러나 계평마을의 강둑에서 바라보면 강폭이 매우 넓고 수심이 매우 깊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구의 퇴현(退賢)이란 퇴휴(退休)한 현인(賢人), 혹은 용퇴(勇退)한 현인이란 뜻이다. 퇴계는 상락공 김방경이 천길 강물 굽어보이는 곳에 대를 쌓고 무예를 익히고 유희하던 곳에 수백 년이 지나 이곳으로 낙향하여 강정(江亭)을 짓고 학문을 연마한 마애선생을 존모하는 마음을 담아 판서연(判書淵)이라 명명하였다. 낙강정 정자는 세월 속에 퇴색되고 무너져 중수의 과정을 거쳤으나 정자 앞에 흐르는 강물은 천 년 만 년 마르지 않고 쉼 없이 흘러간다. 퇴계는 마애선생의 지조와 유덕이 유장(悠長)한 세월 속에 영원히 남으리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2) 낙강정의 중건과 이건

마애에 의해서 건립된 낙강정은 오랜 세월 속에 무너지고 훼손되었다가 365년 뒤인 1806년에 그의 7대손인 초은(樵隱) 권당(權讜, 1731~1812)과 학림(鶴林) 권방(權訪, 1740~1808) 형제에 의해 공수포(公須浦) 옛 터에 7칸으로 새롭게 중건되었다. 중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대계(大溪) 이주정(李周禎, 1750~1818)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 낙동강에 임해 날개를 펼친 듯한 낙강정은 고 총재 마애 권선생이 퇴휴한 정자이다. 선생은 백 번 정련한 쇠 같은 강직한 자질로서 중종·인종·명종 세 조정에서 양(陽)을 부식(扶植)하고 음(陰)을 억누르는 직언(直言)을 올렸고, 사악함을 물리치고 아첨하는 이를 멀리하는 소를 올렸다. 그 수립한 것은 백대

> 에 알려질 만한 것이 있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물을 감상함에 미쳐서는 대현 이신 퇴도선생께서 '퇴현(退賢)'으로 허여하셨으니 선생의 명절(名節)은 온전하다고 할만하다. 선생이 돌아가시고 정자도 폐해졌다가 결국 무너진 지가 몇 년이 되었다. 병인년(1806) 봄에 선생의 후손인 상사공(권당)과 원외랑(권방) 형제께서 조상의 업을 이어 새롭게 지었는데, 많은 선비들이 진실로 조력하였다. 대개 예전의 터에서 조금 옮긴 높은 언덕이다. 집은 겨우 7칸으로 벽립해 있고 연홍이 그대로 있어 부앙(俯仰)하고 돌아보며 선생의 유풍을 느낄 수 있었다.[34] …(중략)… 순조 6년 병인년(1806) 2월에 고성 이주정(李周禎)이 삼가 기록하다.

이주정은 서두에서 낙강정 주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중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주정은 마애 권예가 중종·인종·명종 세 임금을 섬기면서 사특한 것을 물리치고 아첨하는 이를 멀리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녔으며, 고향으로 낙향한 이후에는 퇴계가 그의 명절(名節)을 '퇴현(退賢)' 두 글자로 허여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 낙강정 중수를 주도한 사람과 위치, 규모 등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학림 권방의 「중수상량문」에서도 중건 당시의 정자의 위치, 주변배경, 규모, 마애선생의 행적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정자가 오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초려(草廬)가 아니라 와옥(瓦屋)의 형태로 지었으며 탁 트인 곳을 좇아 언덕에서 고원지대로 옮겼으며, 여강서원의 제도를 본떠서 7칸으로 하였고, 도산서당의 규모를 모방하여 높이와 너비를 8자로 하였다."[35]라고 한 대목은 매우 인상적이다.

---

34) 『磨厓實紀』 卷2, 「洛江亭重修記」, "臨洛而翼然曰洛江亭者, 故冢宰磨厓權先生退休之堂也. 先生以百鍊精剛之姿, 際中仁明三朝, 抗直言於扶陽抑陰, 奏彈章於斥邪遠佞, 其所樹立, 有足風聲百代者, 而及其謝簪川觀也, 以退陶夫子之大賢, 許之以退賢, 先生之名節, 可謂全矣. 先生沒而亭廢, 遂退且幾年. 丙寅春先生裔孫上舍公及員外郎昆弟, 肯構以新之, 而多士實助力焉. 盖稍移舊址而高原也. …中略… 上之六年丙寅仲春, 固城李周禎謹記."

35) 『鶴林集』 卷10, 「洛江亭重建上梁文」, "將爲經久之圖, 匪草廬而伊瓦屋. 更趁爽塏之境, 舍某邱而于高原. 七架庳楣, 略倣廬阜院制作. 八尺高廣, 近取陶山舍規模."

이후 낙강정은 60년 뒤인 1865년(고종 2)에 9세손 권최(權最) 등이 여러 족손들과 함께 이건하였고, 또 70년 뒤인 1935년에 14세손인 권백원(權百源), 권도혁(權道赫) 등이 다시 중수를 한다. 또 50년 뒤인 1985년에는 수리시설통수지설(水利施設通水之洩)로 인하여 정자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권주혁(權柱赫)·권순창(權純昶)·권오성(權五成)·권상식(權相軾) 등이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기로 합의하고 옛 터에서 백보 떨어진 곳에 이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7대손 낙강정보존회장인 권용주(權容柱)의 신청에 의해 경상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 같은 해 낙강정기적비(洛江亭紀蹟碑)도 함께 세워졌다. 또한 2013년에는 권용주(權容柱)·권상식(權相軾)·권순찬(權純贊) 등 여러 족친들의 모의로 마애선생신도비(磨厓先生神道碑)를 세우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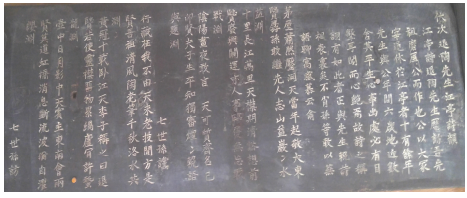
4. 낙강정의 현판과 후대의 제영시

낙강정에는 현재 16점의 현판이 걸려 있다. 외부에는 낙강정(洛江亭)과 판서연(判書淵) 편액[36]을 포함하여 귀와(龜窩) 김굉(金坵, 1739~1816)이 찬한 「판서연기(判書淵記)」, 그리고 16대손인 권순우(權純宇)가 찬한 낙강정이건기(洛江亭移建記)를 합쳐 모두 4점의 현판이 걸려 있다. 내부에는 마애 선생의 8세손 권익(權翼)이 마애가 읊은 「강정우음(江亭偶吟)」 3수를 써서 각자한 시판을 포함하여, 퇴계 이황의 「낙강정제영」 시판, 행촌(杏村) 김시강(金是杠, 1587~?)이 퇴계가 마애의 죽음에 지은 만시를 보고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시판, 이주정(李周禎, 1750~1818)이 찬한 「낙강정중수기」, 퇴계의 강정 시에 차운한 이주정의 시판, 학림 권방이 찬한 「낙강정중건상량문」, 퇴계의 시에 권당(權讜)과 권방(權訪)이 각각 3수의 시를 읊은 시판, 류규(柳逵, 1730~1808)・이집두(李集斗, 1744~1820)・이정덕(李庭德, 1809~1882)

36) 판서연 현판 글씨는 1806년 중수할 당시에 구와(龜窩) 김굉(金坵)이 쓰고, 후손 권병일(權秉一)이 새겨서 건 것이다.

등이 퇴계의 시에 차운한 시판, 이만각(李晩慤, 1815~1874)이 찬한 「중건낙강정기(重建洛江亭記)」, 안동부사 심동신(沈東臣, 1824~1889)이 퇴계의 시에 차운하여 3수를 읊은 「근차퇴도선생판상운(謹次退陶先生板上韻)」, 김광제(金光濟, 1866~1920)가 퇴계의 시에 차운하여 3수의 시를 읊은 시판, 그리고 공산(恭山) 송준필(宋浚弼, 1869~1943)이 찬한 「낙강정중건기(洛江亭重建記)」 등 모두 12점의 현판이 걸려 있다. 이 중에 권당(權讜)의 시를 소개하기로 한다.

茅屋蕭然壓洞天	동천이 굽어보이는 쓸쓸한 띠 집을
當年起敬大東賢	당시 동방의 현인께서 경외하셨네
孱孫敢繼先人志	자손들이 감히 선조의 뜻을 이었으니
山益巖巖水益淵	산은 더욱 우뚝하고 물은 더욱 깊으리



인용시는 낙강정에 걸려 있는 시로, 권당의 문집이 따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의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권당은 마애의 7세손으로, 1774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1810년에는 마애가 1519년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로 있을 당시에 기록한 사초(史草)의 일부분이 오래된 상자 속에 보관되어 오던 것을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배접해서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37] 또 퇴계의 중형 온계(溫溪) 이해(李瀣)의 시호(諡號)를 청하는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는 아우 학림 권방과 함께 그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던 선조의 정자를 이제야 중수하게 되었기에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37) 『磨厓先生實紀』 卷2, 「敬書先祖磨厓先生己卯史草後」, “惟我先祖磨厓府君遺墨, 無隻字留傳者, 獨有中廟朝正德十四年四月日, 帶藝文館奉敎時, 史草一冊, 遺在古笥中, 不肖奉而藏之五十餘年. 竊恐仍爲蠹魚之食, 歲庚午維夏, 惜起而粧續之. 奉玩其字畫, 漫漶或有豕亥之難辨 然銀鉤金索, 飛動遒勁, 然有當日筆端精神. 至今爲二百九十有二年之久, 而無異昨日手澤, 豈非傳家之寶耶?” 앞의 정구복의 논문 27쪽 참조.

없었다. 그는 서문에서 퇴계가 강정을 찾은 것에 대한 언급과 두 사람 간의 나이가 6살 차이가 나고, 두 사람이 살았던 곳의 거리가 몇 십리에 불과하였으며, 퇴계가 마애의 심사와 출처에 대해서 경복하여 만시와 강정 시를 짓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38] 두 번째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陰陽晝夜敢言天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라 임금께 직언하였으니
可質齊名己卯賢	자질은 기묘명현과 같다고 할 수 있네
夫子生平知獨審	부자만이 생평을 잘 알고 있던 터라
煌煌輓語與題淵	만시와 강정 시에 환히 밝히었네

중종(中宗)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거사의 부당함을 직언한 마애의 자질을 조광조를 위시한 김정・김식・김구・윤자임・박훈・박세희・기준 등의 기묘명현에 견주고 있다. 또한 당당하고 공명정대한 마애의 자질을 퇴계가 만시와 강정 시에 핍진하게 다루었던 일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마애 권예의 삶과 낙강정의 건립 및 중건・이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애가 살았던 시기는 4차례의 사화로 인해 수많은 선비들이 참화를 입었던 때였다. 국왕 중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훈구세력인 홍경주・심정 등을 이용하여 소격서 철폐, 정국공신의 위훈 삭제, 현량과 실시 등 급진적 개혁을 단행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를 위시한 사림파를 배격하기 위해 벌어진 기묘사화는 역사적・정치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38) 낙강정 내부에 걸려 있는 권당의 「伏次退陶先生江亭詩韻序」를 그대로 인용해 본다. “江亭詩, 退陶先生歷訪吾先祖磨厓公而作也. 公以大冢宰退休於江亭者, 十有餘年. 先生與公, 年間六歲, 地近數舍, 其平生心事出處, 必有目擊耳聞, 而心艷焉. 故詩之稱詡, 有如此者, 正與先生輓詩, 相表裏矣. 不肖孫等, 敢以蕪語, 聊寓感慕云爾.”

지금도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마애는 이 기묘사화의 중심에 서서 공명정대한 행동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25세의 청년이 임금(중종)의 면전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시종일관 무편무당의 입장을 견지한 마애의 행동은 동방의 현인으로 추앙받는 퇴계 이황에 의해 높이 평가받았다. 또 그가 장수지소로 경영한 강정(江亭) 또한 그보다 여섯 살 적은 퇴계가 이곳을 찾음으로 인해 조명되기 시작했고, 이때 읊은 퇴계의 7언 절구 마지막 구의 '판서연' 세 글자로 인해 낙강정은 판서연으로 거듭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세인들의 추앙을 받으며 유유히 전해지고 있다.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각에 따라 칭송되기도 하고 폄하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마애라는 인물과 그가 경영한 낙강정은 퇴계라는 걸출한 인물의 평가와 방문 덕택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그러나 향후 마애의 고귀한 정신을 전승하고 그 역사적 자취를 유지·보존하는 책임은 후손들과 후학들에게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2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3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원문

『晉書』, 『中宗實錄』

具鳳齡, 『栢潭集』, (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39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權訪, 『鶴林集』, (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속97집, 민족문화추진회, 2010.

權輗, 『磨厓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1742, 경인문화사, 1996.

權好文, 『松巖集』, (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41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金坵, 『龜窩集』, (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속95집, 민족문화추진회, 2010.

金若鍊, 『斗庵集』, (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속91집, 민족문화추진회, 2010.

金義貞, 『潛庵逸稿』, 한국역대문집총서 114, 경인문화사, 1987.

李滉, 『退溪集』, (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29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周世鵬, 『武陵雜稿』, (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26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2. 논문

김경수, 「中宗朝 權輗의 史草에 帶한 硏究」, 『고문서연구』 9권, 한국고문서학회, 1996.

정구복, 「中宗朝 磨厓 權輗의 史草」, 『季刊書誌學報』 8, 한국서지학회, 1992.

정두희, 「기묘사화와 조광조」, 『역사학보』 제146집, 역사학회, 1995.

Abstract

Maae Kwon Ye's Life and Nakgangjeong

Hwang, Man-ki*

In this thesis, Maae Kwon Ye's life, a figure in the early 16th century, and Nakgangjeong run by him in his latter days were examined. Kwon Ye was a person who was at the center of Gimyosahwa, one of 4 massacres of scholars in Joseon, and tried to overcome it with impartial faith. At that time, he was working as a Chunchugwangisagwan, and when he heard about the rebellion on November 16, 1519, the next day of Gimyosahwa, and made efforts to overcome Gimyosahwa wisely by meeting King Jungjong face to face and making forthright statements about the unfairness of the uprising with the vigor of a 25-year-old youth. His decisive action was highly estimated by Toegye Lee Hwang revered as a wise man of the East. In addition, Nakgangjeong he ran as Jangsujiso also became known by Toegye's visit to the place. With the three letters, 'Panseoyeon(判書淵)', in the last phrase of 7eon Jeolgu recited by Toegye, Nakgangjeong became born again as Panseoyeon. Nakgangjeong that had been born again as Panseoyeon went through several reconstructions and relocations later. On Nakgangjeong designated as Gyeongsangbukdo local cultural asset in 2011 hang 16

* Acting Professor of Academy Research, The toegye Studies Institute in Andong National University / E-mail : sino5360@hanmail.net

pieces of signboards in total including Nakgangjeong and Panseonyeon tablets, Jungsugimun, Jeyeongsi and etc.

key words: Maae(磨厓) Kwon Ye(權輗), Nakgangjeong(洛江亭), Panseoyeon (判書淵), Toegye(退溪) Lee Hwang(李滉), Cheongseongsan(靑城山)